

목포 삼학도에 유람선·항구포차 뜬다

보고 타고 먹는 즐거움 '삼학도 3락' 5월 완성 테마정원도 조성... '목포의 센트럴파크' 기대

신흥 관광평가로 떠오르고 있는 목포시의 대표 관광명소인 삼학도가 '목포의 센트럴파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삼학도 복원 공원과 사업 추진으로 주목을 받아온 '삼학도 삼락(三樂)'이 오는 5월 완성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락은 보는 즐거움, 타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을 일컫는다.

보는 즐거움으로는 이미 조성된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과 어린이박물관이 꼽힌다. 매년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이 8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올해부터 34억 원이 투입돼 가족과 자연이 하나되는 테마정원(테마경관)이 꾸며진다.

우선 상반기 중삼학도에 무장애 나눔길과 생태연못을 비롯한 친수공간이 조성된다. 중삼학도 5000㎡에는 꽃단지도 조성돼 사계절 꽃이 피는 삼학도로 거듭난다.

이곳은 '해변길 30리 조성' 사업 구간에도 포함돼 앞으로 걷기 마니아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타는 즐거움은 오는 5월부터 옛 해경부두에서 관광유람선이 운행된다. 주간 2회, 야간 1회 등 하루 세차례 운행되며, 유람선은 6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선과 200명 규모의 소형선 등 모두 2척이 운행된다. 운항코스는 평화광장-대불부두-학섬-웅머리-신항만 세월호 거처현장-장좌도-목포대교(울도-외담도-달리도)-선착장으로, 소요 예정시간은 1시간30분이다.

먹는 즐거움으로 오는 5월 삼학도 관광유람선 취항과 때를 맞춰 맛의 도시 목포의 정취와 낭만을 선사할 '항구 포차'가 운영된다.

목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목포 항구 포차'를 운영할 운영자 모집에 들어갔다. 항구포차 운영자는 모두 15명을 선발하



김중식 목포시장이 삼학도 테마경관 조성사업을 비롯해 관광유람선 운항과 목포 항구포차 운영과 관련, 삼학도 현지를 직접 둘러보고 있다. <목포시 제공>

며, 모집은 전통 포차요리(목포 9미), 한식·중식·일식·퓨전 등 외식요리, 간식류 등 3개 분야다.

1차 서류평가(11일-13일)와 사업설명회(17일), 2차 음식품평회(25일)를 거

쳐 이달 30일 최종 선정된다. 음식 품평회는 청결성 20점, 창의성 20점, 요리의 맛 20점, 표현성 10점, 향토성 10점, 대중성·상품성 10점, 가격 적정성 10점 등 7개 항목(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실뱀장어 불법어업 5월까지 특별 단속

서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실뱀장어 어업이 어선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 단속은 오는 5월31일까지다.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을 하거나 선박의 항해를 위법하는 항로와 항계 내 불법 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육상에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의 거래나 수집상을 중점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단속에 앞서 최근 해경, 지자체 등 19개 기관이 참석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 사전 대책 회의를 열었다.

국내 실뱀장어 입식 현황과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무허가 항로상 부설된 어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이 역행하고 항로와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해 항행 선박 해난사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i@kwangju.co.kr

신안 사리항·영광 대신항에 등대 설치



신안 흑산도 사리항 방파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방파제 입·출항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신안 흑산도 사리항과 영광 백수읍 대신항에 등대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사리항 방파제는 지난 2017년에 준공됐지만, 지금까지 등대가 없는 상태로 운영돼 야간조업 등 지역 어업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목포해수청은 2억5000만원을 들여 9m 높이의 철탑등대 2기를 6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영광 백수해안도로에 위치한 대신항은 2010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돼 2017년 방파제, 접안시설, 배후부지 등 항만 시설

이 확장됐으나, 이정표 역할을 할 등대는 설치되지 않았다.

대신항 방파제에 국비 1억3000만원을 들여 직경 2.6m, 높이 12.4m 규모의 붉은색 등대를 설치한다. 인근 칠산터미 모양과 지역 특산물인 조기 입모양을 형상화했다.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선박의 항해 위해 요소를 발굴·개선해 지역 어업인의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i@kwangju.co.kr

“코로나19 극복하자” 전통시장 장보기 확산

목포시·의회·시민단체 등 동참 릴레이 장보기 챌린지도 등장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심하게 얼면서 서민들이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소상공인 가게 이용하기가 대표적이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목포지역 전통시장 7곳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국별로 담당시장을 지정, 책임운영에 들어갔다.

자유시장은 기획관리국, 신중양시장은 자치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종합수산시장은 관광문화체육국, 동부시장은 경제산업국과 의회사무국, 청호시장은 안전도시건설국, 황동시장은 환경수도사업단, 중앙식료시장은 도시발전사업단이 각각 지정됐다. 시청 직원들은 매주 금요일 지정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로 했다.

목포시의회도 전통시장 장보기에 동참하고 있다. 김휴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30여 명이 지난 26일 동부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물품을 구매했다. 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7곳을 차례로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물품을 구입하기로 했다.

목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경희)도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과 김오수·박옥성 위원장 등이 지난 26일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며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지난 28일 동부시장에서 '전통시장 릴레이 SOS 장보기 목포사랑 친절운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목포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과 회원 60여명이 참여해 시장 상인 기(氣) 살리기, 지역경제 살리는 장보기 등을 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도록 다른 전통시장도 찾아 장보기를 전개할 방침이다.

장보기 운동은 지역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박지원 국회의원(목포·민생당)은 최근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민생경제도 살리

자는 취지로 '우리 동네 장보기 챌린지'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민생경제도 살리는 등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면서 "큰 딸과 함께 목포 황동시장에 가서 오징어와 딸기를 샀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장보기 챌린지' 다음 주자로 이호균 전 전남도의회 의장과 장승기 목포시의원, 박민준 크라운호텔 사장을 지목한 뒤 "동네상가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SNS에 '인증샷'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신안예총 회장에

임창성씨 선출

제18대 목포신안예총 회장에 임창성(60·사진) 목포연예협회 지회장이 선출됐다.

목포신안예총은 "목포신안예총 산하 7개 지회에서 대의원 각 5명씩 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치른 선거에서 기호1번 임후보가 21표를 얻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일 밝혔다. 목포신안예총 회장 취임식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열 방침이다.

임 신임 회장은 ▲김영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예술문화상 상금 상향 지원 ▲회원녀의 장학금제도 신설 ▲원로예술인 복지위원회 구성 ▲지역 생활문화동호인 육성사업 추진 ▲예술인이 우대받는 멤버십카드 발급 ▲국제예술교류 및 해외문화탐방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 신임 회장은 "목포시민과 늘 함께 했던 예향목포 60년 역사를 새로이 변화시켜 관광·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진정한 예향다운 목포와 목포예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자기모양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